

빠체! 주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님들께 루마니아에서 열세 번째 선교편지를 전합니다. 늘 저희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이천은광교회 김상기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루마니아에 온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한걸음 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4년 전 만 해도 수도 이름도 몰랐던 나라였는데 아는 사람도 한 명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니 지금은 많은 루마니아 교회들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고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 선교편지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루마니아에서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곳에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중 하나가 루마니아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루마니아에서는 한국에서 살아왔던 방식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과 상황들도 참 많습니다. 가끔씩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곳 사람들에게 차별이나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때에는 머나먼 조선 땅에 와서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받던 선교사님들이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조선을 포기하지 않고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각오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미워했고 십자가에 못박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합니다. 그 인내와 사랑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이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다툼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람들을 사랑할 힘과 용기 내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심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함께 해 주신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라데아 근교
호수 방문

지난 9월 아파트의 누수사고로 인해 새로운 집으로 잘 이사하였습니다. 동역자님들의 후원금으로 새로 이사온 집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부족함 없이 구비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이사한 집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었지만 처음에는 신고식을 호되게 치렀습니다. 이사 후 얼마 안 되어서 집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에서 10일이 넘게 계속 흠탕물이 나왔습니다. 세수나 샤워 요리 설거지 세탁등 많은 물 사용이 어려워 애를 먹었습니다. 중고로 구입한 가전제품들이 말썽이라 직접 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사를 오고 나서 공간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루마니아 학생들 9명을 집으로 초대하여 한국 음식도 대접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간증할 수 있는 시간

을 가졌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13살 학생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50이 넘는 분도 계십니다. 50대 중반의 떼오도라씨는 한국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조선시대 사극에 폭 빠져있습니다. 학생들이 저희보다 한국 드라마 배우나 가수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서 놀랄 때도 있습니다. 학생 9명중 1명만이 개신교도입니다. 이들과 좋은 관계들을 이어나가 바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또 하나님의 선교사역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어교실 문화사역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 기간에 재소자들의 가족들을 방문하여 선물을 나누어 주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 곳은 차로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까지 찾아가서 재소자 가족들을 방문합니다. 그런 모습에 연신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집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악취가 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남편과는 이미 인연을 끊었다고 하는 분도 계셨고 또 교도소에있는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를 읽으면서 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교도소 복음사역을 통해 재소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믿음의 가정으로 온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깨어진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서로를 진정으로 품을 수 있음을 이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반기에는 13명의 오라데아 교도소 재소자들이 10주과정의 멘토링과정을 잘 마치고 수료하였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둘러앉아서 소감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되었다는 어느 재소자의 고백은 선교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 시작 시간때 예배에도 말씀에도 집중하지 못하며 탄정을 피우던 이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서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10주과정을 수료한 재소자들은 매 주일 교도소에서 드러지는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매주 주일 아침

에 교도소로 방문하여 예배를 섬기는 루마니아인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교도소가 그저 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재소자들이 깨닫는 장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 재소자 가정 방문



오라데아 교도소 사역

협력하여 섬기고 있는 이네우 스페란차 교회는 두 달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 루마니아 시골집들은 대부분 난로에 나무장작을 태워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는 가정집 화재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스페란차 교회에도 나무를 태우는 난로가 하나 있었는데

데 난로 근처는 너무 뜨겁고 난로와 먼 뒷자리는 춥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며 히터가 되는 에어컨을 달아서 예배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리모델링후 주위 고아원의 아이들을 초대하여 성탄절 행사도 진행 하였고 지난주에는 저희와 많은 시간 사역을 함께 했던 이네우 고아원의 플로린 형제가 세례도 받았습니다. 행사 때 교회가 꽉 차도록 손님들이 와서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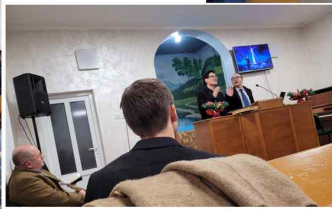


노숙자 센터 사역

데니쇼아라 크레틴짜 교회 사역



이네우 스페란짜 교회 사역



루마니아에서 종교비자를 가진 선교사가 거주증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루마니아 현지 교회의 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매번 거주증을 연장할 때마다 이네우 스페란차교회에서 저희가 루마니아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보증을 해줍니다. 다른 루마니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주증 때문에 루마니아 현지교회에서 선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선교사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갈등 때문에 선교사역을 포기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희는 현지교회들과 어려움 없이 잘 동역하고 있

습니다. 거주증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서류들이 잘 준비되고 또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 동역자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도 영혼도 늘 강건하시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동역자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1. 전영희선교사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강직성척추염)
2. 루마니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상황들을 인내하게 하소서
3. 한국어 교실 사역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게 하소서
4. 교도소 사역 노숙자센터 사역에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5.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고 현지교회와 현지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6. 모든 물질적 영적 필요를 채우시고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루마니아 김영광 전영희 선교사 이천은광교회 후원 수입 지출내역

수입		지출	
항목	예산액	항목	예산액
이천은광교회 선교후원	1,100,000	모임 공간을 위한 비품구매 (의자4개, 테이블)	170,000
		현지 목회자 정기후원 (소린 마이어 목사)	60,000
		사역지 이동시 교통비 및 유류비	150,000
		렌트 하우스 월세 (전도를 위한 모임공간 포함)	250,000
		의료보험비용	70,000
		생활을 위한 식료품 생수등 생필품 구매	150,000
		현지교회(스페란차, 크레딘짜 교회, 에임레 교회) 헌 금	100,000
		가스비, 전기료, 수도, 인터넷, 핸드폰 요금	150,000
수입 합계	1,100,000	지출 합계	1,100,000